

환경현장교육 결과보고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자연체험활동

월영초등학교

담당 : 정대수 [REDACTED]
chewkey@empal.com

가. 목적(취지 및 필요성)

월영초등학교는 2002년부터 [생명의 숲] 지정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와 환경부 후원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자연체험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재량 시간을 통하여 담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의 편성 운영 방법의 하나인 자기 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에서 자연체험활동을 재량활동을 통해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본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그리고 경남 지역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초등학교 2학년 재량활동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2003년에는 본교 2학년 학생들의 생태학적 소양과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주 1시간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2003학년도 정규 수업시간에 주 1시간씩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교는 2학년 5학급이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내용

▷ 1년동안 자연체험활동 교과서로 공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원	단원명	차시별 주제	비고
1단원	자세를 낮춰요	① 주위의 자연 ② 땅과 새싹 ③ 봄을 찾으러 가요 ④ 봄을 교실로 옮겨 봅시다.	3월
2단원	야! 소풍날이다.	① 봄을 알리는 꽃 ② 개구리 알을 찾아서 ③ 새야 새야 ④ 나무야, 나하고 놀자	4월 봄소풍
3단원	자연의 색이 좋아요	①~② 향토물 듣이기 ③~④ 차자물 듣이기	5월
4단원	반갑다. 물고기야	① 물에 빠진 물고기 ② 물고기들의 자랑대회 ③ 물고기를 만나러 가요 ④ 물가에서 하는 놀이	6월
5단원	곤충과 거미	① 꽃으로 날아온 나비 ② 파리 이야기 ③ 곤충 만들기 ④ 너, 딱 걸렸어	9월
6단원	생명의 보금자리 습지	① 습지의 모습 살펴보기 ② 습지에서 관찰하기 ③ 습지 꾸며 보기 ④ 습지 놀이하기	10월 가을 소풍
7단원	숲은 우리들의 친구	① 숲으로 가자 ② 모두 함께 살아요 ③ 예쁜 옷을 입은 내 친구들 ④ 자여~ 빙고 놀이	11월
8단원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철새들	① 겨울에 찾아오는 새 ②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짓 ③ 철새의 부리 ④ 철새에게 편지 쓰기	12월

▷ 매주 1시간 또는 매달 하루를 4시간 전일제로 운영한다.

다. 방법

- 3월 ~ 12월 사이의 기후 조건과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매회 1인의 강사와 담임 선생님, 2명의 학부모 도우미로 진행하게 한다.
- 실내 활동의 경우 월영초등학교의 교육공간을 활용 실시하며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는 활동 장소까지 버스로 이동하여 모둠별 지도 강사의 진행에 따라 활동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년 활동 정하기(1차시)

▪ 학습대상자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과 진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1년 활동과 규칙을 정해본다.

② 사전학습

▪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에 앞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나 문서자료를 통한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 사전학습은 학생들 스스로 일부 자료를 찾아와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사전학습 진행 후 현장학습에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것을 얘기해본다.

③ 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깃벌이나 늪을 접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 관찰일지에서 관찰상황을 기록한다.

▪ 매회 현장체험학습이 끝난 후 관찰내용을 발표, 공유한다.

④ 보고서 발행

▪ 기록된 관찰일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자연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작한다.

⑤ 유의사항

◦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생물학적 접근보다 자연친화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효율화한다.
- 안전사고, 각종 곤충이나 유해생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주의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들의 사전 모임을 통해 결정한 후 초빙 담당자로 하여금 섭외한다.
- 이 프로그램은 특히 참가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생태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 관찰기록의 즉시 공유를 통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과 신뢰성 있는 관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 무엇보다 신나는 생태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습지에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유도하며
- 심도 있는 평가와 토론을 통해 매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⑥ 담당강사

내부강사(본교 교사)

- 정대수 : 총괄 운영, 갯벌교육, 조류 관찰, 민물고기 관찰
- 노영도 : 아동 인솔, 들꽃, 갯벌과 주민의 삶
- 2-1반 담임 교사 : 아동 인솔, 사진 촬영과 기록, 비상약품
- 2-2 담임 교사: 아동 인솔, 홈페이지 관리
- 하현천 : 들꽃과 나무 (본교 교장 선생님)

외부강사

- 김대현 : 나무로 곤충, 새 만들기
- 여상덕 : 곤충 - 9월 (곤충학 박사)
- 이인식 : 겨울철새 - 12월(마창환경연합 의장)

- 서정희 : 짚풀로 만드는 자연 - 9월 (짚풀문화 연구회 경남 지부장)
- 김인성 : 야생화와 나무 교육 - 3, 11월(환경을 생각하는 경남교사모임 회장)
- 김인철 : 봄소풍, 민물고기 - 4, 6월 (마창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 전명순 : 천연염색 - 5월 (마산고 교사, 천연염색 단원 집필자)
- 박덕선, 이영득, 문수옥 : 풀꽃, 나무 교육

라. 효과

- 전국 최초의 도교육청 인정도서인 자연체험활동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최초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바 의의가 크다.
- 이러한 다양한 수업을 활용으로 2003년 생명의 숲 선정 우수 숲 시범학교에 선정되었다.
- 2004년에는 산림청이 후원하고 경상남도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많은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재량활동으로서 일선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이 보통의 학생들과 실현가능한 다양한 체험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 자연의 생명체간의 연계성을 발견하고 자연을 가꾸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갯벌 동식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주변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갯벌 체험으로 유희와 학습의 이중효과를 살릴 수 있었다.
- 모든 생물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생물종 다양성의 원칙을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 바다와 갯벌에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의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조사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 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마. 1학기 결과

차수	교육일자	단원	교육내용	담당강사	교육장소	교육인원
1	3. 10	1. 자세를 낮춰요	◦주위의 자연, 땅과 새싹, 봄을 교실로 옮겨 봅시다.	담임	학교	200명
2	3. 24	1. 자세를 낮춰요	◦마산 의림사 주변과 주변 야산 ◦새롭게 올라오는 들꽃과 나물들	담임	마산	200명
3	4. 14	2. 야! 소풍 날이다.	◦봄을 알리는 꽃, 새야 새야	담임	학교	200명
4	4. 24	2. 야! 소풍 날이다.	◦개구리 알을 찾아서, 나무야 나하고 놀자 ◦봄소풍 김인철 / 서정희 / 이영득 김대현 / 장은주	5 분	의림사	200명
5	6. 10	3. 자연의 색이 좋아요	◦황토 물 들이기 ◦학부모, 교사 연수(30명)	전명순	학교	200명
6	6. 13	3. 자연의 색이 좋아요	◦치자 물 들이기	담임	수목원	200명
7	6. 23	4. 반갑다 물고기야	◦물에 빠진 물고기, 물고기들의 자랑대회	담임	학교	200명
8	7. 11	4. 반갑다 물고기야	◦물고기를 만나러 가요, 물가에 서 하는 놀이 김인철 / 박덕선 / 서정희 김대현 / 문수옥	5 분	실내외 교육	200명
9	7. 7	1학기 정리	◦소감문 쓰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1학기 정리하기	담임	학교	200명
10	7.21	1학기 정리	◦다양한 표현을 발표하기	담임	학교	200명

2학기 결과

차수	교육일자	단원	교육내용	담당강사	교육장소
11	9. 8	5. 곤충과 거미	◦꽃으로 날아논 나비 ◦파리 이야기	담임	학교
12	9.22	5. 곤충과 거미	◦곤충 만들기 ◦너, 딱 걸렸어	야외 10월 말 예정	무학산
13	10.6	6. 생명의 보금자리	◦습지의 모습 살펴보기 ◦습지 꾸며보기	담임	학교
14	10.20	6. 생명의 보금자리	◦습지에서 관찰하기 ◦습지 놀이하기	야외 11초 예정	진동갯벌
15	11.3	7. 숲은 우리들의 친구	◦숲으로 가자 ◦모두 함께 살아요	담임	학교
16	11.17	7. 숲은 우리들의 친구	◦예쁜 옷을 입은 친구들 ◦자연 빙고 놀이	반성 수목원 야외 학습 11. 06	반성 수목원
17	12.8	8. 겨울에 만나는 철새	◦겨울에 찾아오는 새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짓	담임	학교
18	12.22	8. 겨울에 만나는 철새	◦철새의 부리 ◦철새에게 편지쓰기	12.12 실시	주남저수지

○ 매주 1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월 2회 실시하고 월 1회는 야외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 일정상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야외 전일제 수업일 경우 학교 교육과정 일정으로 조정 운영되었다. 특히 기상조건이 좋지 못하여 연기하기도 하였다.

7월 11일 금요일

2학년 자연체험활동 민물고기 교육일정 안내

월영초등학교

강좌명	강사	1교시 9/10-50	2교시 10/10-50	3교시 11/00-40	4교시 11/50-12/30	비고
나무로 만들기 (미꾸라지)	김대현 선생님 (실내 교육)	4	5	3	1	신문지 준비 모둠 만들기
짚과 풀로 만들기	서정희 선생님 (실내 교육)	2	3	4	5	신문지 준비 모둠 만들기
민물고기	김인철 선생님 (실내 교육)	3	2	1	4	책상 뒤로 밀기
우리 학교의 나무 공부하기	문수옥 선생님 (실외 교육)	5	1	2	3	비 올 때 우산 준비
우리 학교의 풀과 꽃	박덕선 선생님 (실외 교육)	1	4	5	2	비 올 때 우산 준비

□ 1, 2교시는 봄 현장 학습에 못한 반을 먼저 배정하여 반편성을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2일(금)

2학년 겨울철새 체험학습 시간표

- 교보 생명 교육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9시 : 운동장 아동 인솔

9시 10분 : 차량 탑승

9시 50분 : 창원 주남 저수지 도착

10시 교육 시작

12시 점심 식사(강사님 따로) (학생은 버스 안에서)

1시 오후 교육

2시 30분 학교로 출발

3시 30분 학교 도착, 집으로 (망원경 반납)

	1반	2반	3반	4반	5반
10시	김인철 (철새교육1)	담임 (글쓰기)	짚과 풀로 새 만들기	나무로 새만들기	임희자 (철새교육2)
11시	나무로 새만들기	김인철 (철새교육1)	담임 (글쓰기)	임희자 (철새교육2)	짚과 풀로 새 만들기
1시	짚과 풀로 새 만들기	나무로 새만들기	김인철 (철새교육1)	담임 (글쓰기)	담임 (글쓰기)
2시	담임 (글쓰기)	임희자 (철새교육2)	나무로 새만들기	짚과 풀로 새 만들기	김인철 (철새교육1)

‘황토 물들이기 체험학습’을 참관하고 나서

2 - 3 박혜주 어머니 김 성 순

지난 7월 2학년 황토 물들이기 체험 학습에 도우미 역할로 체험학습을 참관하게 되었다.
초여름 날에 우리 전통의 염색법 중의 하나인 황토 물들이기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었다.

체험학습과정은 우리 반 36명을 4개조로 나누어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황토 물들이기는 고운 황토 물에 물들이기 천을 넣어 물들이기를 하는데, 물들이기에 사용하는 천은 우유 섞은 물에 주물러서 햇볕에 충분히 말린 후 사용해야 하며, 먼저 큰 들통에 황토를 넣은 다음 물과 잘 섞은 후 각자 배부된 천으로 황토 물을 들이고, 황토 물을 다 들인 후 각자 자기가 물들인 천을 햇볕에 잘 말리면 된다.

조잘거리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 불그스레한 황토 물이 들 때마다 곱고 예쁜 손들이 눈에 선하다.

비록 간단하고 짧은 체험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황토 물들이기 체험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활이 우리들의 삶과 건강에 좋다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황토 속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한 효소작용은 정화력과 분해력이 있으며, 인체의 독을 제거해 주어서 우리 조상들은 제독제, 해독제로 오래도록 사용되었다. 황토에서 발산하는 원적외선이 인체에 흡수되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큰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또 우리 생활에서는 악취를 제거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 시켜주며, 현대과학에서는 황토에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까지 만들고 있다.

이번 황토 체험학습으로 황토의 부드러운 촉감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알찬 체험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친화적인 학습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자연과 함께 놀아요 ~~~

2 - 2 문 일 화

올해 우리 2학년 재량활동은 “자연과 함께 놀아요” 라는 책이다. 그 덕분에 몇 번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 4월에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진북면 의림사로 현장학습을 갔다. 모두들 신이 나서 언제 도착했는지 몰랐다. 코끝에 스치는 상큼한 맑은 공기와 새들의 울음소리, 이름 모를 꽃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우리는 거기서 환경단체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공부를 하였다. 질경이, 제비꽃, 짙레꽃, 백문동, 어름덩굴.....야생화의 이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처음 맛보는 짙레의 맛.....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산에서 많이 따서 먹었다고 하셨다. 풀과 나무로 잠자리도 만들고 대나무 잎으로 배도 만들었다.

또 숲 속에 앉아서 눈을 감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다. 새 울음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 등...친구들과 풀을 이용하여 누가 누가 소리를 크게 내는지 내기도 하였다.

넷물에서 대나무 잎으로 만든 배를 띄우다 그만 넷물에 풍덩~~~~ 내가 빠지자 모두가 ‘하하 호호’ 웃었다.

신나고 즐거운 현장체험 학습이었다.

그리고 6월에는 황토 물들이기 체험학습을 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2학년 전체가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설명을 들으며 모두 별로 열심히 따라했다.

미리 준비한 황토였지만 고운 채로 걸러온 것을 알고 있었다. 적당한 소금과 우유를 섞어서 옷감을 적시고 황토 물에 담근 후 열심히 주물 주물~~~~깨끗한 물로 헹구어 그늘에 말렸다. 아름다운 황토색으로 물들어진 멋있는 손수건을 갖게 되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온 얼굴에 황토 물을 튕기면서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없이 모두 열심히 하였다. 자연의 색으로도 얼마든지 예쁜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다.

7월에는 학교에서 교재원에 핀 야생화와 습지의 생물들.....나무의 심장소리를 들었다.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름을 적어두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야생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내 짝지 야생화도 정해 두었다.

칭진기로 나무의 숨소리를 들었는데...너무나 신기하게도 나무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모든 풀과 꽃, 나무들을 만지면 아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학교가 너무 자랑스럽다. ‘자연과 함께 놀아요’ 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자연도 더 많이 베풀어준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2학기도 즐거운 현장 학습을 기대해본다.~~~~

(선생님과 함께 정리함)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3-2 유 지 혜

오늘 우리 3학년은 국립 3.15묘지에 현장학습을 갔다. 어제까지 내린 비로 현장학습을 가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올라갔다. 나무에 달린 감들을 보며, 서늘한 바람을 안고 오르는 가을 길이었다.

드디어 도착하였다. 커다란 민주의 문, 묘지, 민주재단, 벽면의 조각, 기념관 등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특히 3.15의거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였을 때 눈물이 났다. 김주열선생님은 3.15의거에 참여하신 분이셨고 총알이 눈 사이에 박혀 있는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시체로 떠올랐다고 한다. 친구들은 사진을 보며 끔찍하다고 눈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끔찍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났다. 같은 마산 사람이며 대한민국 사람이, 또 경찰이면서 왜 그랬을까?

그동안 3.15의거 탑에 대해 많이 몰랐었던 내가 한심스러웠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바라만 보았던 3.15 탑을 이제는 새롭게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렸던 많은 젊은 학생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소감문 모음

2-5반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2번 이 호용

친구들과 어제 현장체험 학습을 갔다. 거기에서 본 것은 백조, 기러기, 청둥오리, 재두루미를 보았다. 첫째 시간이 끝이 나고 둘째 시간에 새 만들기를 했다. 새 만들기가 어려웠다. 점심 시간 때 차안에서 밥을 먹었다. 다 먹고 2시쯤 되어 출발해 3시쯤 되어 도착 했다. 집에서 생각 난 것은 청둥오리 두 마리가 날아가는 생각이 남는다. 또 기러기가 하늘을 나는 게 보기가 좋았다. 잠을 푹 잤다.

3번 이 종민

현장체험 학습을 갔다. 장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이었다. 거기서 재미있는 공부도 했다. 선생님 이름은 임희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철새, 백조, 청둥오리, 기러기도 봤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거름 냄새도 맡았다.

김 하원

나는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적은 글이다. 철새를 망원경으로 잘 관찰하였다. 기러기, 백조, 청둥오리 등을 보았다. 시원하였다! 임희자 선생님과 폴로 철새를 만들었다. 프랑스인과 미국인도 보았다. 봉주르, 하이! 란 말로 인사를 하였다. 다음은 점심을 먹고 놀았다. 소나무도 보았다. 수업을 하다가 인수가 썩은 호박을 발로 차 보았다. 호박이 쪼개졌다. 망원경으로 바다에 있는 백조를 보았다. 서정희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김수곤 선생님도 도와 주셨다. 다녀와서 집에 갔다 와서 1시간쯤 쉬었다가,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했다.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다. 병석이네 집에 가서 놀다가 우리 집에서 씻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잤다.

7번 김 인수

1교시는 임희자 선생님과 철새 관찰을 했다. 중간쯤에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망원경으로 동, 서, 남, 북을 봤지만 철새라곤 없었다. 조금 후 조금 작은 망원경으로 오리를 보았다. 2교시는 서정희 선생님과 질과 폴로 오리 만들기를 했다. 1번째는 완성했는데, 두 번째는 계속 실패하였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조르니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썩은 호박을 “뺨”하고 찼다. 호박이 갈라졌다. 선생님께서 혼이 났다. 3교시는 급식시간 이었다. 다들 급식을 즐겁게 먹는다. 나도 즐겁게 먹었다. 조금 있다가 마음대로 가 보았다. 경치가 짱 좋았다.

8번 김 용휘

우리는 철새를 보러 갔다. 가다가 돼지와 소의 똥이 쌓여있는 걸 봤다. 냄새가 지독했다. 선생님이 우리는 이걸 맞으러 온 거라고 말하였다. 친구들은 황당해 했다. 선생님이 계속 맞으라고 했다. 우리는 철새를 보고 오는데, 또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 우리는 점심을 먹을 때 차안에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 놀았다. 나는 망원경으로 백조도 보고 청둥오리도 봤다. 정 요조와 김 병석과, 박 종엽과, 밥 성모가 망원경을 볼 때 집으로 갔다. 그

때 김 민수가 호박을 3번 차서 부서져서 호박 한 개를 사왔다. 안 사오면 돈으로 주어야 한다. 여자 애들은 화장실에 똥이 있어서 더러워서 안 들어갔다. 2-4반 정 종환이랑 놀았다. 나는 재미가 있었다. 나는 망원경 밑에 있는 꽃과 꿀이 있는데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 30번 양혜원

현장체험학습

2003년 12월13일 토요일 맑음

나는 첫째 시간에는 임희자 선생님과 함께 철새를 보러 갔다. 처음에는 쌍안경으로 봐서 잘 안 보여서 망원경으로 봐서 잘 보았다.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았고, 물위에 둥둥 떠 있는 것도 보았다. 또 청둥오리도 보았고, 백조도 보았고, 고니도 보았다.

첫째시간을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외국인분들이 오시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하이라고 다섯 번째는 외국인분1분이 사진을 찍어 주셨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서정희 선생님과 김수곤 선생님과 새 만들기를 했다. 그리고 1,2,3조는 서정희 선생님과 했고 4,5,6조는 김수곤 선생님과 했다. 난 처음 해보니까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쉬워졌다. 끝나고 전망대로 가서 밥 먹고 좀 놀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나오니까 기사아저씨께 인사를 했다. “기사아저씨 고맙습니다”

현장학습

어제 친구들, 선생님과 현장학습을 갔다. 그 장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다. 첫째 수업 때 철새를 보았다. 철새의 종류는 기러기, 고니, 천둥오리이다. 내가 저수지를 망원경으로 저수지를 보았을 때 철새들이 100마리가 넘을 것 같았다. 둘째 수업은 짚과 풀로 새를 만들었다.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점심은 전망대에서 먹었다. 참 맛있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첫째 시간부터 둘째 시간에 했던 것을 공책에 필기하라고 하셨다. 근데 선생님이 뛰어 오시더니 필기도구를 넣으라고 하셨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39번 김민정

제목: 현장체험학습

1.임희자 선생님 2.서정희(김수곤)

첫째 시간 선생님이랑 망원경으로 철새를 보았다. 철새를 보았다. 백조도 보았다.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둘째 시간 선생님이랑 풀로 새를 만들었다. 조금 어려워서 도우미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밥을 먹었다.

다른 반은 밖에서 먹었는데 우리 반은 차에서 먹었다. 그래도 맛있었다. 과자 과일도 먹었다.

그리고 밖에서 놀았다. 너무 숨막혀서 물을 마셨다. 그리고 집에 갔다.

2003년 12월13일 토요일

2-5 39 김민정 -이상-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34번 서민수

현장체험학습

나는 주남저수지에 철새를 보러 갔다. 저수지에서 1교시는 임희자 선생님과 망원경으로 철새를 보며 공부를 했다. 또 2교시에는 서정희 선생님과 철새를 만들었다. 넷째 시간은 점심 시각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간식과 김밥을 함께 먹었다. 그 다음 밖에서 놀았다. 그래서 어떤 저수지가 있었다. 거기에서 망원경이 있어 구경을 했다. 새가 물구나무서는 것도 보았다. 창원시는 재미있는 곳이다.

그리고 보니까 앞에서 전망대가 하나있었다. 거기 안을 창 밖으로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면 진짜 아름다운 생각이겠지 히히~ 창원시는 진짜 이상했다. 소똥이 흠에 싸여 있었다. 소똥 냄새는 어차피 식물에 뿌려주면 거름이 되니까 더 좋겠지 히히~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 7번 김민수

제목: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1교시: 임희자 선생님과 철새관찰

철새를 관찰하러 출발했다. 중간쯤에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이런 망원경으로 동서남북을 봤지만 철새라곤 없었다.

조금 후 망원경으로 오리를 보았다.

2교시: 서정희 선생님과 짬과 풀로 오리 만들기

1번째 완성했다. 2번째는 계속실패 어쩔 수없이 선생님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썩은 호박을 빵 찌웠다. 호박이 갈라졌다. 선생님에게 혼났다.

3교시: 급식

맛있는 급식시간 다들 급식을 즐겁게 먹는다. 나도 즐겁게 먹었다. 조금 있다. 전망대로 가봤다. 경치 짱 좋았다.

4교시: 마치고 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출발했다. 거의 자는 친구들도 자고있었다. 이제 선생님과 인사하고 떠났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김하원

다녀온 곳: 창원시 주남저수지

나는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적은 글이다.

철새를 망원경으로 잘 관찰하였다. 기러기, 백조, 청둥오리를 보았다. 시원하였다. 1.임희자 선생님과 철새 관찰을 하였다.

2.서정희 선생님과 풀로 철새를 만들었다. 프랑스인과 미국인을 보았다. 봉쥬르,하이란 말로 인사하였다. 다음은 점심을 먹었고 놀았다. 소나무도 보았다. 수업을 하다가 민수가 썩은 호박을 발로 차서 호박이 쪼개졌다. 서정희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김수곤 선생님도 도와주셨다. 3시30분~4시쯤에 도착했다. 도시락을 먹을 때 환기도 시켰다. 다녀와서 집에 갔다와서 1시간쯤 쉬었다가 운동장에 나가 축구도 했다.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다. 병식이 집에 가서 놀다가 우리 집에서 씻고 공부하고 잠을 잤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3번 이종민

제목: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장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였다. 거기서 재미있는 공부도 했다. 선생님이름은 임희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철새, 백조, 청둥오리, 기러기도 봤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거름냄새도 맡았다. 그리고, 프랑스사람도 봤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서정희 선생님과 김수곤 선생님이 오셔서 짬뽕으로 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를 다 만들고 난 뒤 점심을 버스에서 먹고 전망대 위에서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나중엔 버스 타고 올 때 노래를 부르고 집에 왔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2번 이호용

친구들과 어제 현장체험학습에 갔다. 거기에서 본 것은 백조, 기러기, 청둥오리, 재두루미를 보았다.

첫째 시간이 끝이 나고 둘째 시간에 새만들기를 했다. 새만들기가 어려웠다. 점심 시간 때 차안에서 2시쯤 되어 출발해 3시쯤 되어 도착했다. 집에서 생각난 것은 청둥오리 두 마리가 가는 게 생각에 납습니다. 또 기러기가 하늘 나는 게 보기가 좋았다. 잠을 푹 잤다.

월영초등학교 2-5 8번 김용휘

제목: 창원시 주남저수지

우리는 철새를 보러 갔다.

가다가 돼지와 소의 똥이 싸여있는 걸 봤다. 냄새가 지독했다. 선생님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걸 맞으려운 거라고 말하였다. 친구들은 황당했다. 선생님이 계속 맞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코를 잡았다. 우리는 철새를 보고 오는데 또,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 우리는 점심을 먹을 때 차안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 놀았다. 나는 망원경을 보고 백조도 봤고 청둥오리를 봤다 정용조와 김병석과 박종엽과 박성모가 망원경을 볼 때 집으로 갔다. 그 때 호박을 3번 차서 부셔져서 호박 한 개를 사왔다. 안 사오면 돈으로 주어야 한다. 여자들은 글서 화장실에 똥이 있어서 더러워서 안 들어갔다. 2-4반 정종환이랑 놀았다. 나는 재미있었다. 나는 망원경 밑에 있는 꽃과 풀이 있는 데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다. 근데 우리가 갈 때 다른 반은 놀고 있었다. 우리가 갈 때 최태웅이 자도 되는지 물어봤다. 선생님이 자면 안 된다고 했다. 조금만 가며 된다고 참으라고 했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 9번 서종우

제목: 가정학습

오늘 아파서 가정학습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랑 병원을 갔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약을 탔다. 그리고 어머니가 점심 사주시고 어머니는 회사를 가시고 나는 집에 갔다.

2003년 12월13일 토요일 맑음 2학년 5반 10번 정용조

제목: 현장체험학습 때보고 들은 것

1.철새 관찰

본 것: 철새 때, 소나무관찰, 고니(협조 선생님: 임희자 선생님)

2.집과 풀로 새 만들기(협조 선생님: 서정희, 김수곤선생님)

들은 것: 짚과 풀로 새 만드는 방법

3.점심 먹는 글쓰기

4.마지막 철새(고니, 청둥오리)관찰

본 것: 고니(백조)들이 한 느티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고 청둥오리가 물 속에서 먹이를 잡는다고 뒤집혀 있었다.

기타: 점심을 먹고 전망대 위에 올라서서 '4번'에 대한 것을 관찰하였다(전망대)

그리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사아저씨께서 친절하신 덕분에 차안에서 점심을 먹었다. 또 해양오염이 심한 게 문제다. 가서보니 하수구에 쓰레기가 있고 물색이 짙은 염록색이었다.

월영초등학교 2-5반 11번 임종범 제목: 현장체험학습

저는 현장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1번째로 임희자 선생님께서 새들의 종류별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소나무, 기러기, 철새 등을 보고 느낀 점도 많이 느낌을 알고 많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차안에서 밥 과자를 먹었다.

전망대에서 청둥오리들을 보고 과자를 많이 먹고 바다를 보았다. 너무 시원하고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많이 보고 스키처럼 타는 걸 많이 보았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는 오늘 2학년과 같이 현장체험 학습에 갔었다. 거기서 임희자 선생님과 철새를 보러 갔었다. 거기서 청둥오리 철새를 보았다. 첫째 시간이 끝이 났다. 외국인도 보았다. 둘째 시간에 풀로 오리 만들기를 밥을 먹으로 갔다. 전망대에서 놀았다. 전망대에서 놀았다. 전망대에서 철새도 보았다. 그리고 기사님은 친절하였다. 나는 너무 재미있고 영어도 하였다. 전망대에서 조금 더 놀았다. 거기에서 화장실도 있었다. 배운 것을 썼다. 집에 가서 나는 잠을 잤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놀았다. 태권도학원에 가였습니다.

2003년 12/13토요일 날씨 맑음(덥다) 2학년5반 29번

장소: 창원시 주남저수지

첫째 시간은 임희자 선생님이셨다. 오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오리의 이름: 백조, 고니, 청둥오리, 기러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실제로 보는 것 같다. 또 다시 보고 싶다. 신기했다. 둘째 시간은 서정희, 김수곤 선생님이시다. 짚으로 새를 만들었다. 너무 예뻐서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강이지 풀로 꼬리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넷째 시간은 버스 안에서 김밥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김밥을 다먹고 전망대에 올라갔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봤다.

2003년12/13 토요일 맑음 2학년5반 24번 이슬기

현장체험학습(창원주남저수지)

1.첫 번째로 저수지에 가서 임희자 선생님과 철새 관찰을 하였다. 망원경으로 보았다. 고니, 청둥오리, 기러기는 희색 비슷했다. 하얗고 참 예뻐다. 끝나고 선생님과 새가 나는 모습을 표연했다.

2.두 번째로는 서정희 선생님과 새만들기를 하였다. 선생님은 참 잘 만드셨다. 짚과 풀로 만들기에는 만날 서정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3.세 번째로는 전망대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다른 반 친구들은 밖에서 먹었는데 우리 반만

버스 안에서 먹었다. 버스 기사 님이 춥다고 차안에서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다. 다 먹고 전망대에서 철새 관찰을 하였다. 관찰도 하고 놀았다. 우리 반 여자 친구들은 화장실이 더러워서 안 들어갔다.

나는 저수지 옆쪽에 물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있어서 신기했다. 그 나무 위에 고니들이 앉아있었다. 나는 그 기사 아저씨가 참 고마웠다.

2003년 12월 13일 토요일 맑음 2학년 5반 최미나

장소: 창원 주남저수지

제목: 현장 학습을 다녀와서

첫째시간에 같이한 선생님: 임희자 선생님

배운 것: 철새의 종류(백조, 고니, 청둥오리, 기러기)

들은 것: 철새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이 시작된 곳으로 간다.

재미있었던 것: 망원경으로 철새를 볼 때

본 것: 소나무, 철새들

둘째 시간에 같이 한 선생님: 서정희 선생님, 김수곤 선생님

배운 것: 풀과 짚으로 새 만들기

들은 것: 풀과 짚으로 만들기

재미있었던 것: 새의 부리를 만들 때

본 것: 풀로 만든 새

셋째 시간에 한 것: 점심 먹기

본 것: 전망대, 망원경, 저수지

재미있었던 것: 미끄럼

먹은 것: 빵, 초밥, 과자

먹은 장소: 버스 안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22번 김예진

제목: 현장학습

임희자 선생님

임희자 선생님이 망원경으로 철새들은 보여주셨다. 근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1마리도 안보였다. 그냥 보니까 잘 보였다. 근데 뒤로 쳐다보니까 솔방울 나무가 보였다. 나는 솔방울을 만지고 싶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만졌다. 근데 다시 밖으로 돌아서 나갔다. 거기서 앉았다.

근데 철새들 있는 쪽으로 외국사람이 오셨다. 우리가 인사를 했다. 애국사람이 정말 많이 오셨다. 외국사람이 왔다. 우리 반 다 사진을 찍어 주셨다. 근데 앞에 솔방울 나무가 있었다. 친구들이 망원경으로 보았다.

월영초등학교 2-5 16번 황상필

현장체험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첫째시간에 임희자 선생님과 철새를 보았다. 나는 임희자 선생님의 작은 망원경 큰망원경으로 보았다.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청둥오리도 보았다. 또, 고니(백조)도 보았다. 또 외국사람도 보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봉쥬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봉쥬르 이렇게도 하고 하이라고도 했다. 뉴스를 들으니까 흙이 썩어서 오염이 되어서 철새가 없다고 들었다 둘째 시간에 서정희 선생님과 김수곤 선생님과 새를 만들었다. 1,2,3조는 서정희 선생님과 했고 4,5,6조는 김수곤 선생님과 했다. 그리고 차로 갔는데 전망대로 간다고 해서 갔다. 거기서 밥을 먹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참 친절 하셨다. 덕분에 따뜻한 데에서 밥을 먹었다. 다 먹고 저수지에서 백조를 보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은 과자를 집에서 갈라서 먹었다.

황영근

나는 거기 가서 놀았다.

마산->학교->주남저수지->전망대까지 간다. 주남저수지는 똥이 많아서 똥을 피하며 새를 보았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전망대로 갔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31번 이혜수

제목: 현장체험학습

학교에서 주남저수지에 소풍을 갔다. 첫째 시간은 임희자 선생님과 공부를 하였는데 망원경으로 고니(백조)를 많이 보았다. 둘째 시간은 서정희 선생님과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주남저수지에 공부하러 온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서정희 선생님께서 새를 만든다고 말씀 하셨다. 친구들과 새만들기를 했는데 나는 잘 만들어서 서정희 선생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셨다. 나중에 친구들이 줄을 서서 버스에 가는데 서정희 선생님께서 여치를 만들어 나한테만 주었다. 그리고 서정희 선생님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민지는 여치를 너무 갖고 싶어했다. 버스 안에서 밥을 먹으려고 꺼내다가 선생님께서 전망대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반은 버스 안에서 먹었다. 다른 반은 밖에서 먹었다. 그 이유는 버스 안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민지랑 전망대에 가서 놀았다. 올라가 보니까 바다도 보이고 고니(백조)도 봤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반 때문에 넘어졌다. 나는 천천히 내려갔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똥이 있었다. 더 놀고 있는데 김용희가 버스 안에 들어오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공책에 들은 것 본 것을 필기하라고 말씀하셨다. 나하고 민지는 적고 있는데 차가 움직여서 글을 못 적었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35번 장지원

제목: 현장체험학습

오늘은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장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갔다. 첫째 시간에 임희자 선생님과 망원경으로 철새를 보고 아름다운 백조도 봤다. 정말 아름다웠다. 둘째 시간에는 서정희 선생님과 김수곤 선생님과 풀로 철새를 만들기를 했다. 셋째 시간에 맛있는 김밥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김밥을 먹고 전망대에서 좀 놀았다. 전망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전망대에서 놀고 버스에서 집에 갈 때 차안에서 폭 자고 학교 앞에 올 때 나희가 깨워줬다. 나는 오늘 폐지똥 냄새에 지독했지만 재미있었다. 나는 아까 둘째 시간에 4,5,6조는 김수곤 선생님에게 배우고 1,2,3조는 서정희 선생님께 배웠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도 보고 외국사람이 사진도 찍어주셨다. 즐거운 하루였다.

월영초등학교 2-5 17 김병석 2003년 12월 13일 토요일

현장체험학습 때 있었던 일

어제 친구들이랑 현장체험학습을 갔다.(철새를 보러)

장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갔었다. 가서 첫째 시간에는 임희자 선생님과 겨울 철새를 보았다.(백조, 재두루미, 청둥오리)라고 첫째 시간을 끝나고 나서 프랑스인과 외국인을 만났다. 인사를 하고 외국인이 사진도 찍어 주셨다. 그리고 새가 나는 모양도 흉내를 내봤다.

그리고 새가 나는 모양도 흉내를 내봤다. 그리고 둘째는 철새를 서정희 선생님들과 같이 만 들었다.

그리고 차안에서 밥을 먹었다. 다른 반은 추운 밖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데 우리 반은 기사님께서 차 안에서 밥을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차안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수첩에 공부한 걸 적었다.(공부한 것, 본 것) 그리고 집에 갈 때 재미있는 게임(드래곤볼, 메탈슬러그)을 했다.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놀 때 또 새를 보았다. 멀리 있어서 무슨 새인지 몰랐다. 내생각에는 철새 같았다. 현장체험학습이 참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또 오고 싶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33번 구효제

주남저수지를 다녀와서..

어제 창원시주남 저수지를 다녀 왔다.먼저임희자 선생님과 철 새공부를 했다. 저수지위를 다니는 기러기와저수지물에 떠 있는 고니와 재두루미를 보았다. 고니 와 재두루 미는 물 속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고기를 잡아먹었다. 나는 정말 신기했다. 고니는 목이 길었다. 고니가 백조인데 사람들이 고니의 깃털이 흰색이어서 흰 백조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머리는 내가 만들고 몸과 꼬리는 선생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오리 꼬리에다 풀과 꽃을 꽂아 보았지만 떨어질까 봐 다시 뽑아 제자리에 두었다. 오리를 만들고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다. 추워서버스안에서 먹었다 버스안에서먹으면버스 기사 님께 감사했다. 밥을 다먹고 전망대에 올라가 놀았다. 그러다가 저 수리를 보았다. 저수지 멀리에도 오리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놀았다. 가끔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제 현장체험 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갈려고 했다.

즐거운 현장체험학습을 마치니 아쉬웠다. 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니 잡아왔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떠들며 놀았다. 이 체험학습이 2학년의 마지막 체험학습 이었으니까 더 아쉬웠다. 그래도 즐겁고 신나는 주남저수지 현장체험 학습이었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26번 곽유빈

제목: 현장체험 학습 때 있었던 일 우리는 어제 현장체험 학습으로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놀러갔다. 그 곳에서 첫째 시간에 백조 천둥오리 재두루미 등등을 보았다. 그리고 다 끝나고 프랑스인과 외국인을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는 외국인인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미 있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다. 다시 버스에 타서 집에 갔다.

나는 우리 기사 님이 참 친절하시 다구 생각했다. 다른 기사 님들은 버스에 흘린다고 춥다고 버스 안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잘 안된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둥오리의 몸의 색깔은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임희자 선생님께서는 재두루미는 가까이 에서 보면 등에서 빛이 난다고 하셨다. 나는 집에 가면서 오늘은 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3시쯤 도착해 친구들과 헤어졌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 이지은

현장체험학습

나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갔다. 처음에는 임희자 선생님이랑 철새를 보러갔다. 그것도 내마리나 봤다. 첫째는 고니이고 두 번째는 기러기 세 번째는 백조 네 번째는 청둥오리를 보았다. 근데 임희자 선생님께서 큰 망원경으로 보여준다 외국인도 만났다. 둘째간에는 김희곤 선생님이랑 서정희선생님이랑 철 새 만들기를 했다. 그리고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민 수가 서정희 선생님이 만들기 시범을 다보여주고나서 끝났을 때 민 수가 박수를 쳐줘서 만들은 것을 민 구에게 주었다. 그리고 혜수는 만들기를 잘 해서 서정희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아이들 기사아저씨가 다 밖 에기서 아저씨는 그냥 친절하게 우리들을 자기 딸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차에서 머게 해주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도 나는 참고 그냥 했다. 그리고 밖에 서 다. 그리고 또 망원경으로 철새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버스 안에서 쓰기 공부를 했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5반 윤동훈

제목: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어제 현장학습은 재미있었다. 장소는 전남 저수지이다 기사 님은 무척 친절하다. 도착했을 때 첫수업이 시작됐다. 철새수업 이다. 선생님 이름은 임희자 선생님이다. 두 번째 수업은 짚과풀로 만들기다.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도와줘서 완성됐다. 선생님이름은 서정희, 김수근 선생님이다. 3번째는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엄마가 새로 개발한? 음식이 맛있었다. 아주 맛이 좋았다. 다먹고 나서밖에 놀았다. 재미있었다. 망안 경으로 백조를 보았다 재미있다. 마지막으로 현장학습에 있었던 것을 적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재미있는 현장 학습이다.

2학년 5반 13번 최태웅

제목: 현장 학습 보고서

간 곳: (창원시 주남저수지)

1.본 것 : 새의 때, 백조 뒤집어모습, 천둥오리, 기러기, 백조(고니)

1시간 선생님 성함(임희자 선생님)

2.만들었을 것: 짚과풀로 새만들기(철새)

2시간 선생님성함은 (서정희 선생님)

3. 점심 먹고, 글쓰기

4. 마지막 철새보기 (천둥오리, 백조(고니)나무)

나는 그 시간 이 재미있었다.

나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철새가 나는 것과 백조 모서 회이를 하는 것 같다.

다음주에는 겨울 소풍을 가면 좋겠다.

얼마나 재이겠는지?

난 궁금하다.

3학년때 겨울 때 설 매장 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우리 학교 2학교만 프랑스 사람도 만나다. 프랑스 한 분이 사진을 찍어주었다.

용조와 하원 이와 동훈이가 가려서 우리는 만나와다. 그래서 기분이별로다.

그래도 서정희 선생님 때문에 즐거워다.

철새가 나는 모습도 표현해 보았다.

참 재미있었다.

아! 그 시간 때 같이 도와주신 선생님의 성함은 생각이 않난다.

나는 잘 이자 먹는 일이 많다.

월영초등학교 2-5반 이준화 15번

제목: 현장 체험 학습

임희자 선생님께서 망원경으로 철새를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본 철새는 백조, 천둥오리, 고니를 보았습니다. 주남저수지 에 가보니 철새 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 없어 나면 물 바닥 있는 흙이 썩어 먹이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없었습니다.

2교시에는 서정희 선생님과 짬과풀로 새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선생님께서 도와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은 정소는 전망대에 가서 먹었습니다. 같이 먹은 친구는 윤동훈과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영 초등학교 2학년 5반 6번 박종엽

제목: 현장 체험 학습을 마치고

현장 체험 학습을 마치고 어제는 현장 체험학습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창원시 주남저수지로 갔다. 거기서 임희자 선생님과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철새를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큰기러기, 천둥오리를 보았다. 또 소나무도 봤다.

2교시 할 때 외국인이 철새를 망원경으로 보고 돌아올 때 인사를 했다. 서정희 선생님과 김수곤 선생님과 같이 짬으로 새를 만들었다. 그 다음 버스를 타고 밥을 먹으러 전남대로 갔는데 밖이 추워서 버스 안에서 먹었다. 버스기사 아저씨는 친절해서 좋다. 밥을 다 먹고 전망대 위로 올라갔다. 거기서 백조, 청둥오리를 보고 나는 버스 안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창원을 지나서 마산으로 왔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왔다. 어제 현장 체험학습은 재미있었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이현민

제목: 현장 체험 학습 때 있었던 일

나는 현장 학습 때 창원 저수지에 가서 망원경이라는 도구로 철새를 보았다. 하늘에서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신기했다. 저수지에는 기러기, 청둥오리, 고니 등으로 있었다.

그리고 둘째 시간 때에는 서정희 선생님과 철새 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점심을 차안에서 먹었다. 근데 다른 기사 아저씨는 차가 더러워진다고 밖에서 먹어라 했는데 우리 반만 버스 안에서 먹었다. 기사 아저씨께서 고마워서 꼭 인사를 하고 내려야겠다.

첫째 시간을 마치고 있으니 우리들이 왔던 길에서 프랑스 인이 5~8명쯤 있었다. 어떤 프랑스 인은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프랑스인 들에게 인사말이 '봉쥬'이다. 내가 차를 타고 간 길은 (학교-창원-주남저수지-전망대-창원-학교-집)으로 왔다. 집으로 오니 피아노 학원은 쉬어도 되고 뿌리 학원의 공부시간이 지나갔다. 내가 이 학교를 전학 가서 창원으로 가면 다시 주남저수지에 가서 철새들을 볼 것이다. 재미있는 현장 체험 학습 이었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이수민

제목: 현장체험 학습

장소는 창원, 주남저수지.

그 곳에서 철새에 대해 배웠다. 첫째 시간은 기러기, 청둥오리, 고니 등을 망원경으로 보았다. 첫째시간 선생님 성함은 임희자 선생님이시다. 둘째 시간에는 철새를 풀과 짚으로 만들기 했다. 둘째 시간 선생님 성함은 서정희 선생님이시다. 첫째시간에 외국인들을 만났다. 둘째 시간에는 풀과 짚으로 만들기는 어려웠다. 점심은 전망대로 가서 밖에서 먹고 싶었는데 버스 안에서 먹었다.

점심을 먹고 전망대에서 놀았다. 풀밭에서 놀기도 하고 망원경으로 철새를 보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때 친구들이 한 개만 주라고 해서 줬는데 맛있다고 하면서 계속 달라고 했다.

유자차도 친구들이 거의 다 먹었고 과자도 친구들이 거의 다 먹었다. 그래서 조금 밖에 먹지 못했다. 그래도 현장 학습은 정말 재미있다.

가정 학습보다 현장학습이 더 나오니까..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는 아주 친절하시다. 키도 크고 잘생기셨다.

3학년이 되어서 더 ~ 훨씬 재미있겠지!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28번 한빛나

제목: 현장체험학습

난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게되었다. 난 거기에서 무얼 보았냐면 1교시 때는 임희자 선생님과 함께 망원경으로 철새 고니 백조 기러기 청둥오리 소나무 솔방울을 보았다.

또 2교시 때에는 새를 만들었다. 부리는 쉬웠지만 몸통 부분은 어려워서 선생님이 해주셨다. 난 풀로 이쁘게 장식을 하였다. 난 그새를 여자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밥을 먹으로 전망대에 갔다.

거기서 보니 백조가 있었다. 그래서 임희자 선생님이 썩~ 하고 달려와 망원경을 설치해주셨다. 백조는 30마리가 넘을 것 같았다. 난 임희자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 설치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난 이제 백조 기러기 고니 청둥오리 철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보는 거는 신이 났다.

재미있는 점: 난 망원경으로 철새 등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새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다. 또 외국인과 인사도 하였다. 그 인사는 봉쥬르

고마웠던 일: 버스 아저씨가 우리 반만 차에서 밥을 먹게 해줘서 고마웠다. 나도 커서 착한 사람이 되야지.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21번 석나희

12월 12일 금요일

제목: 현장학습

오늘은 현장학습을 갔다. 버스를 타고 가 도착해서 첫째시간에는 임희자 선생님이랑 망원경으로 철새 관찰을 했다. 그리고 둘째 시간 선생님을 기다릴 때 프랑스 사람을 만났는데 프랑스의 인사말은 봉쥬르 이다. 둘째 시간 선생님 이름은 서정희 선생님과 김수곤 선생님이랑 철새 만들기를 했다. 근데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김인수가 옆에 있는 썩은 호박을 차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전망대로 가서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었다. 근데 다른 반들은 추위도 밖에서 김밥을 버스에서 먹었다. 그리고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또 망원경으로 또 철새를 보았다. 철새 이름은 백조다. 나는 백조가 밥을 먹는 거도 정말 예뻐다. 나는 또 보고 싶다.

월영초등학교 2학년 5반 36번 김민지


제목: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오늘 현장 체험학습을 창원 주남저수지로 간다. 버스 타고 주남저수지로 왔다. 1교시 선생님 성함은 임희자 선생님이시다. 1교시는 철새 관찰하다가 인사하고 2교시 선생님을 기다리셨는데 서정희 선생님이셨다. 오늘은 새를 만든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 선생님을 도와주실 김수곤 선생님이시다. 1,2,3조는 서정희 선생님이 4,5,6조는 김수곤 선생님이 가르쳤다. 새를 만들고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밥 먹고 전망대에 갔다. 바다 가 보였다. 망원경으로 보고 놀다가 버스 타고 학교에 왔다.

2학년 보고서 모음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윤상은)

날 짜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짚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 → 대나무피리 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옥을 서고 있는 동물 ○ 검야지 ○ 뱀아리와 달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잘 불어준다. ○ 오리를 불어, 테이프를 붙여야 잘 들어간다. 		
느낌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이재섭)

날 짜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짚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 → 대나무 피리 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풍잎 ○ 나무 ○ 박물관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를 버리면 강이 더 깨끗해진다 ○ 옛날에는 현대는 깨끗 		
느낌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느낌 점 점과 날 커럽고 대대지가 새만들기 할 커럽고 무서운 해지만 가 짜라서 깨끗하고 새 굶어 가아 주워서 피리 하 짜라 재미있었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강종안)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짚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 → 대나무 피리 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사람들이 쓰느물건 ○ 나뭇잎 ○ 제비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드러내서 상해한다 ○ 나무를 많이 심으면 풍수를 만들수 있다. 		
느낌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대나무피리 만들기가 신기했다. 대나무로 피리를 구멍을 막고 부 르는게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했다. 짐집이는 참 재밌다. 나는 목화다가 나에가 드르느 날기웠다. 각도 부는것은 신기했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이수경)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짚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 → 대나무 피리 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레방아 ○ 많은 나무들 ○ 박물관에 가서 영화를 본 것.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물고게들 죽고 물고게 꼬여가 갈려 나간 것 ○ 많은 동물들이 죽을 지킴을 지켜주는 것 		
느낌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물고게들 죽고 환경오염이 되는 것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이서운)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집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전학 → 대나무피리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 잔디밭 ○ 박물관 ○ 선생님들		
들은 것	○ 대나무피리 만드는 법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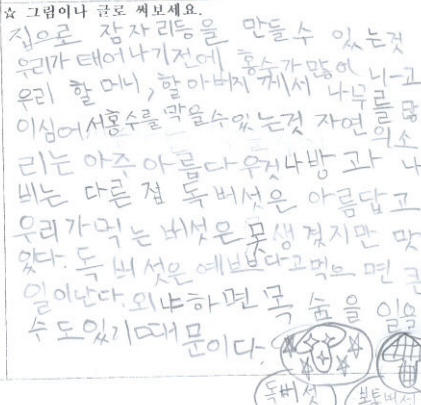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김다정)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집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전학 → 대나무피리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 나무 ○ 풀 ○ 오래된 물건		
들은 것	○ 오래된 물건들은 옛날에 쓰었다는 것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정후용)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전학 → 대나무피리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 물레방아 ○ 장수풍뎠이 ○ 공룡		
들은 것	○ 집으로 잠자리를 만든 것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주수환)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나무로만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 박물관전학 → 대나무피리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 나무로만 단수호신 ○ 오래된 산물일화물 만드는 것 ○ 선생님들이 만든 작풍들		
들은 것	○ 작풍들 만드는 법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현장학습 보고서

원명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구혜린)

날 짜	2003년 11월 6 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집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박물관견학 → 대나무 피리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 여러가지 나무 ○ 대나무피리 ○ 대나무새		
들은 것	○ 대나무 피리는 양쪽 구멍들 막아야 소리가난다. ○ 대나무 피리는 크기에 따라 각도가 다르다.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박물관을 견학했다 두너섯의종족도 보았고 일어로 한 모양도보고 여러가지 시도보았다 아주 재미있었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명초등학교 제 2학년 | 반 이름(최은숙)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집으로 만들기 → 새만들기 → 나무관찰, 박물관 견학, 대나무 피리만들기		
	공부한 내용		
본 것	○ 물레 빙아 ○ 은행나무열 ○ 단풍잎		
들은 것	○ 나무는우리몸에 참 좋은 식물이다 ○ 나무가 없으면우리가 숨을쉴수없다.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느낀 점	 <p>대나무 피리만들 때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구나.</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비서혜)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의림사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디 나뭇잎, 나비나물, 제비꽃, 질경이, 호랑이 ● 꽃, 벌레, 질경이, 벌레, 달걀, 차선조 썰레나 ● 물,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으로 소리 낸 것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으로 소리 낸 것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활동 1) 야생화 관찰</p> <p>(활동 2) 소리 듣기</p> <p>나비나물 잎이 다 나비 모양이라서 나뭇잎</p> <p>꽃잎으로 소리를 냈다.</p> <p>(활동 3) 풀과 나무로 잠자리 만들기</p> <p>대나무 잎으로 배만 만들기</p> <p>잠자리가 날개를 서로 뺐었다.</p> <p>배도 달걀처럼 기웠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양숙진)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진북면의 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의림사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디 나뭇잎, 나비나물, 제비꽃, 안경병이 꽃 ○ 병꽃나무, 오랑 거꽃, 회재비꽃, 씨름꽃 ○ 질경이, 자승수꽃, 참꽃마리 이름 더 알아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리, 바람소리 ○ 물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활동 1) 야생화 관찰</p> <p>병꽃나무, 미꾸리 나뭇잎, 나비나물, 제비꽃, 안경병이 꽃, 씨름꽃, 오랑 거꽃을 보았습니다.</p> <p>(활동 2) 소리 듣기</p> <p>풀잎으로 소리 듣기</p> <p>자연 소리 듣기</p> <p>(활동 3) 풀과 나무로 잠자리 만들기</p> <p>잠자리 리본만 드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윤상복)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진북면의 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의림사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비나물, 질경이, 나뭇잎, 꽃, 병어리 ○ 질레 나뭇잎, 제비꽃, 병꽃, 나뭇잎, 으름덩굴 ○ 마디 나뭇잎, 풀, 잔, 꽃, 나무, 조선탄나뭇잎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소리 ○ 새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활동 1) 야생화 관찰</p> <p>(활동 2) 소리 듣기</p> <p>(활동 3) 풀과 나무로 잠자리 만들기</p> <p>대나무 잎으로 배만 만들기</p> <p>이 풀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윤지영)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디 나뭇잎, 나비나물, 질경이, 제비꽃, 병어리 ○ 병명, 안경병이, 오랑 거, 회재비꽃, 참꽃과 풀, 으름덩굴, 벌레, 으름덩굴, 오리나무, 호정, 물리나무, 잠상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소리, 새소리, 풀잎으로 소리 낸 소리, 바람소리, ○ 람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활동 1) 야생화 관찰</p> <p>마디 나뭇잎, 나비나물, 질경이, 제비꽃, 병명, 안경병이, 오랑 거, 회재비꽃, 참꽃, 참꽃마리, 으름덩굴, 오랑 거, 물리나무, 호정, 물리나무, 잠상, 물리나무, 잠상</p> <p>(활동 2) 소리 듣기</p> <p>풀잎으로 소리 듣기</p> <p>(활동 3) 풀과 나무로 잠자리 만들기</p> <p>대나무 잎으로 배만 만들기.</p>		


현장학습 보고서

원형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윤지영)

날짜	4월 6일(목)	장소	경상남도 식물원
이동한 순서	학교 → 경상남도수목원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화 단풍잎 ○ 열매와 꽃과 관전차 ○ 씨앗들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 피리 만들기, 나무 새 만들기 ○ 새소리, 바람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대나무 피리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서 보니 까 소리도 잘나고 아름답 다요 소리가 좋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나무 새 만들기. 나무 새를 만들어 너 마당에 놓아 줘 놓아라 너는 꼭 잘 노래 부른다.</p> </div> </div>		


현장학습 보고서

원형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이수지)

날짜	2003년 11월 21일 목요일	장소	경상남도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경상남도수목원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화 단풍잎 ○ 열매 ○ 씨앗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리 ○ 바람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름: 화살나무 열매 이름: 열매를 관찰하 는 열매이다 새 은 빨간 색이고 열매에 잎은 커 피라 비슷하다 그리고 잎은 화살나 무나면 줄기가 완전히 생장 이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름: 향나무 이 향은 향나무 잎이다 향나무는 오래 향나무라면 잎에서 향기가 나서 향나무다 저사할 지낼 때 향으로 쓰기도 한다.</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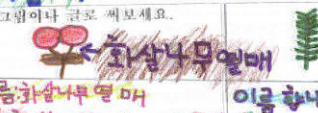

현장학습 보고서

원형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이승주)

날짜	2003년 4월 24일	장소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서	학교 → 의림사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의 냇물, 재비꽃 ○ 나비나물, 잘 꽃마리 ○ 질경이, 으름덩굴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리, 바람소리 ○ 물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활동 1) 야생화 관찰하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활동 2)</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활동 3)</p> </div> </div> <p>(절레나무) 절레나무 논밭을 수 있습니다.</p> <p>풀로 피 나무로 리를 부 만들 잡자 는 모습 리입니다 입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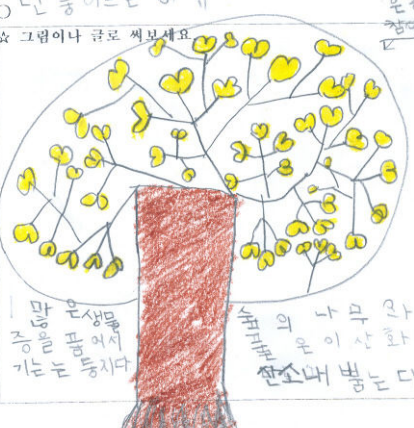
현장학습 보고서

원형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이수지)

날짜	2003년 11월 21일 목요일	장소	경상남도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경상남도수목원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화 단풍잎 ○ 열매 ○ 씨앗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리 ○ 바람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름: 화살나무 열매 이 화살나무 열매는 다 화살나무를 다 가져 갔다 화살나무 열매는 약 초다 먹을 수 있다 화살나무 열매는 맛 있고 좋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름: 향나무 이 향나무는 밤 새가 좋고 생기게 되었다</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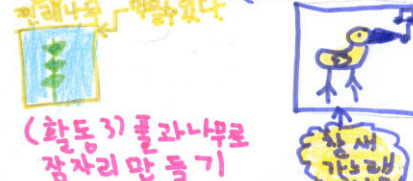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4반 이름(가침우)

날짜	11월 6일 목요일	장소	경산남도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에서 - 반 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립 반 물간 ○ 십이 지신 상조 작 ○ 보 기 수 (공예)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에 있는 나무 ○ 단풍이 드는 이 기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정민욱)

날짜	2003년 4월 24일	장소	진보면의감사
이동한 순서	학교 → 의림사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나리냉이, 나비나무, 질경이, 제비꽃, 병꽃나무, 진례나무, 으름덩굴, 함박나무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냇물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p>(활동) 야생화 관찰 (활동 2) 새 보기</p> 		

경동오리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름(주수민)

날짜	2003년 11월 6일	장소	경산남도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경산남도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화, 연못, 새, 단풍, 낙엽, 곤충 ○ 나무, 괴리판들기, 나무 새끼 만들기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리 ○ 바람소리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p>목과 가지가 되고 나무 새끼, 만드는데 참 재미있고 나무 판이 가늘어지면 참 재미있었다</p> 		



형동오리 조사:

분류: 거러기과 오리과

생활 방식: 물리 생활
크기: 몸집이 수컷 약 60cm, 암컷 약 52cm

생식: 난생 (하루에 6~12개)

서식장소: 하천·호수·못 등지의 풀밭이나 습지

발포지역: 북반구

내용:

몸길이는 수컷이 약 60cm, 암컷이 약 52cm이다. 수컷은 머리와 목이 광택있는 검은 깃털이고 흰색이다. 암컷은 흰색이지만 가슴에 검은색만은 점장색이어서 위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부리는 노란색이다. 암컷은 갈색으로 얼룩진다. 집오리의 원종이며, 한국에 서는 가장 흔한 겨울새이자 대표적인 사냥용 새이기도 하다.

반: 호수·못·간척지·하천·해안·농경지·개울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데, 낮에는 만안나 또는 해안 등 앞이 트인 곳에서 먹이를 찾는다. 지렁이·도토리·습지 곤충·라미아·참깨씨 등을 먹는다. 알에서는 V자 모양의 새끼가 나오며, 4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한 배에 6~12개의 알을 낳아 25~29일 동안

현장학습 보고서

위령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림(박상우)

11월 6일	장소	경남남도수목원
함양군구이바탕 5국원구		
공부한 내용		
○ 사립 박물관 ○ 함양이거늘 호수 ○ 환경오염 단속		
○ 신기한 나무 어디까지		
○ 빈기 한가운데는 비닐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거기에서 가서 나무를 가리키고 나무를 찍으려 했는데 그리고 더 나무를 가리키고 나무를 찍으려 했는데 보고 싶은 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를 찍으려 했는데 나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나무를 찍으려		



24
 26
 박상우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4반 이름(박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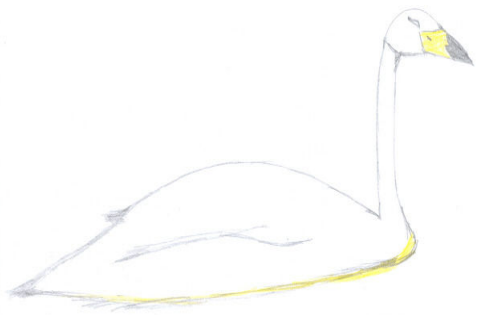
날짜	11/6 목요일	장소	경천, 수목원 (이탄성)
이동한 순서	학교에서 → 이탄성 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 사철 박물관 ○ 꽃종류 ○ 나무의 종류		
들은 것	○ 꽃 이름, 꽃의 생김새 ○ 나무의 대해서, 나무의 수컷, 암컷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나무에게 건강 수컷 나무 암컷 없잖아 알았는데 나무에게도 수컷 암컷 나무가 있다, 꽃들은 여왕이 사육사이다 라고 한다, 나무 → 수목원 ← 암컷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4반 이름(박태윤)

날짜	2003. 11. 6. 목	장소	(이)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에서(이)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 산림 박물관 ○ 열대식물원 ○ 수림(꽃)		
들은 것	○ 식물에 대한 설명 ○ 새소리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식물을 꺾거나 만지면 안되고 박물관에 쓰러지면 안된다는 느낌도 식물도 살아있고 꽃을 꺾으면 아플 것 같아 나도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안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날아갈 것 같다			



울영초등학교

2학년 4반 2번 배수경

겨울철새


이름: 고니

-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 202호
- 지정연도: 1968년 5월 30일
- 크기: 날개길이 49~55cm, 꼬리길이 14~17.5cm, 몸무게 4.2~4.6kg

5~6월에 3~5개의 알을 낳으며 막이는 민물에 사는 수생식물의 뿌리나 육지에 사는 식물의 잔과, 작은 동물, 곤충 등이다. 새끼가 지나 이끼류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굴을 만든다. 한국에서는 겨울새로 10월 하순에 왔다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4월에 되돌아 가며, 러시아 북부의 툰드라와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현장학습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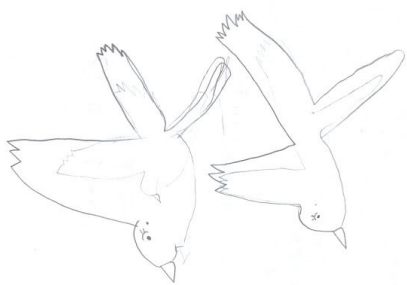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4반 이금(이상준)

날짜	11월 6일 목요일	장소	경상남도수목원(이반성)
이동한 순서	학교에서 이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박물관 심리치유상조각 나무모양종류 		
들었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이름나무의 남자와 여자 꽃이름 꽃의 생김새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p>나무에겐 남자와 여자가 없는데 알았는데 있었다 나무한테도 남자 랑 여자가 있다 꽃은 나무처럼 개 하나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4반 이금(임수현)

날짜	11월 6일	장소	경상남도(이반성)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이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수정 산림과 곤충 표본 화천만의 삶 툰 풍덩이 		
들었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림 나무는 위험을 피해서 온 나무라네요 비비추는 옛날에 나무로 먹었대요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p>느끼는 점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도 태어나지 않았대요 도느껴고 나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처럼 애쓰고 열심히 생활 하라 식물공 도 하지 않대요 느낌이 든다</p>		
			




지게서는 가끔 관찰되는 종으로 나무가 지나 바위 위에서 휴식하는데 독수리보다 팔
은 다리 길이가 짧고 날은 단 두쌍을 휘둘러 주며 독수리와 같이 적은 수가 우리들 이금 기도
아우면 알지워 달아 올라 책관을 이룬다 몸길이는 약 80cm이며 약 수컷은 같은
머리와 뒷부분 황갈색이며 암컷은 약 갈색이다 산비탈 낙엽층에서 이금 수컷은 다
면이는 교수목, 각종 동물의 배설물, 개구리, 개구리, 도롱뇽 등이다

계류! 관찰예
생면! 대안과 구관 거문 절서금 각 나무
2-4! 리면! 2-4면!
이수현!
임수현!
비면! 0.000!


현장학습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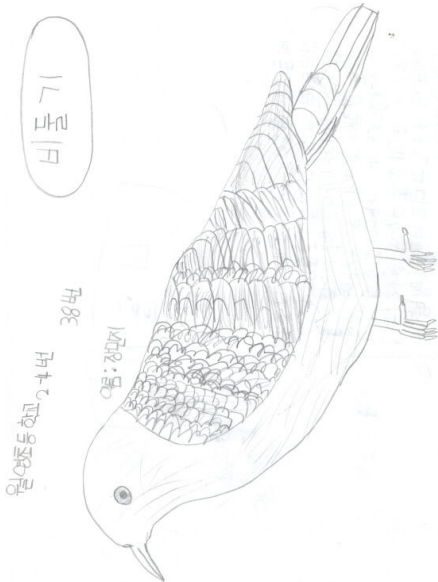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나 반 이름(진정민)

날짜	11월 6일	장소	경남도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에서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 옛날에 있어던 것 ○ 옛날에 있어던 사람들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니 비바추는 겨울이 되면 달라치리고방이 되어 에별말을 비바추고 울다 ○ 온향 나무 열매가 가열 나무 그 열매는 냄새가 난다 		
느낀 점			

현장학습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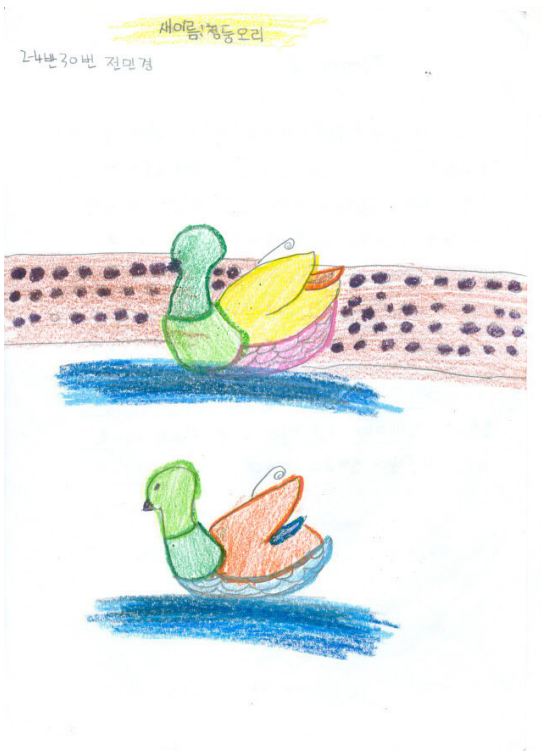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나 반 이름(장민지)

날짜	11월 6일	장소	경남도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반성수목원 → 꽃밭 → 박물관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을 보았습니다. ● 나무를 보았습니다. ● 부엉이, 동물새를 보았습니다.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나무가 있는데 향기가 좋아요.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에서 부엉이소리를 들었습니다.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청둥오리의 특징

특징: 크기는 위양과 청둥오리의 중간 정도이다. 암수의 몸 색깔이 다르고, 수컷이 이마에 붉은색 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컷의 부리는 분홍색이고, 머리와 목은 검정색이고, 등과 앞가슴은 회색색을 띤 검은색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약 60cm이고, 암컷이 약 52cm이다. 수컷은 머리와 목이 광택있는 짙은 녹색이고, 흰색은 가는 무늬가 있다. 뒷가슴은 짙은 갈색이다. 암컷은 회색이지만, 가운데 검정색은 검정색이며 위로 열려져 있다.
 청둥오리는 철새이다.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철새라고 말한다.



비둘기

비둘기는 예쁜 새입니다. 고개 아래에 살고 있고
 집 근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몸 색깔이
 갈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데, 주로 흰색과
 갈색이 섞여 있어 예쁘고 귀엽습니다. 특히
 예쁜 새입니다. 고개 아래에 살고 있고
 예쁜 새입니다. 고개 아래에 살고 있고
 예쁜 새입니다.

이름 장민지
 0-4
 38번
 평양동호회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21(박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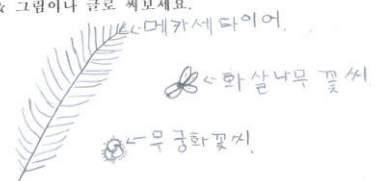
날짜	2003년 11월 6일	장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진전면 →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 향나무 실과 박 ○ 좁 가시 나무 윗판나무 ○ 물레방아 떡방아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레방아는 곡식을 쌀로 적어 번 다닌다 ○ 떡방아는 밀에 쌀을 넣고 밟고 관고로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나는 처음 버스들 탈 때 부터 참 즐거웠다. 나는 처음 나무 과 잡에서 삼림박물관에서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화석도 보고 참 재미 있었다. 바들기는 참 자리 만들기와 오리 만들기도 하였다. 잠 줄지 왔다 그리고 나무 과 잡 두 번 재 시간에는 게임을 하였다 친구들이 많이 나와 게임을 하고 무 스폰조 한 명이 이기면</p>		

그로의 모두가 삼을 받는다 (뒤쪽에 계속)

|| 갈 때에는 나는 버스 안에
 잤다. 집에서는 현장
 힘에서 재미있는 점과 재미
 점과 몽땅한 점을 공책에
 부모님께 말 하였다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림(구호제)

날짜	2003년 11월 6일	장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서	학교 → 진전면 → 진북면 → 진전면 →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꽃씨 ○ 화살나무 꽃씨 ○ 방가지뿔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레방아는 곡식을 부순다 ○ 실화 백은 실처럼 쪽쪽 하다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메카세 다이어리</p>  <p>산림 박물관에서 곤충도 보고 예쁜 돌도 있었다 그리고 나와서 배풍덩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배풍덩 나무의 열매는 약초라고 했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2반 이림(구호제)

날짜	2003년 4월 24일	장소	마산시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서	학교 출발 → 버스타기 → 진북면 의림사 → 버스타기 → 학교 도착		
	공부한 내용		
본 것	<p>(야생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나리 냉이, 병꽃나무 갈퀴 덩굴 ○ 병꽃나무 제비꽃 참꽃말이, 중개알나무 ○ 개구리강아지, 나뭇개미, 푸른 산시냇물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가지 꽃 이름 조심해야 할 것 ○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일찍 학교로 가서 교실로 들어갔다. 의림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푸른 보리 밭도 보고 예쁜 꽃도 봤다. 의림사 문장는데 앞으로 배만들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래도 하다보니 쉬웠다. 꽃 이름 알기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꽃을 하나씩 정해라고 하시었다. 우리 선생님은 제비꽃으로 정하였다. 나는 예쁜 참꽃말이를 정했다. 거기서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도 먹고 즐겁게 학교로 돌아왔다. 너무 재미있어서 어머니와 또 가 볼 것이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김민지 (김민지)

날 짜	2003년 11월 17일	장 소	방영구재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진동면 → 방영구재원		
	공부한 내용		
본 것	○ 나무 관찰(2) 산림 박물관 견학 ○ 나무 관찰(1) ○		
들은 것	○ 오리 만들기 ○ 잠자리 만들기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내가 느낀 점은 고사때 선생님들이 여러 산물을 가져와 주었고, 산림 박물관을 구경 하게 해주어서 고맙고, 체험할 선생님께서는, 짐 지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알았는데 쉬웠다 그리고 야생초 선생님께서 쫄레꽃은 하얀색이고 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쫄레꽃도 먹었다 텃꽃나무는 뽕같아서 이름이 뽕꽃나무이다 재미난 것은 나무 이름표 만들기였고 엄마께서 싸주신 김밥이 맛있었다 나는 음료수를 안 가지고 먹고 생수를 가지고 왔다 현장학습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와서 집으로 갔다

현장학습 보고서 36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윤(김민지)

날 짜	2003년 11월 24일	장 소	마산시 진북면 임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타기 → 진북면 임림사 → 버스타기 → 학교		
	공부한 내용		
본 것	○ 야생초 < 쫄레나무, 제비꽃, 참깨, 화초 > ○ 시냇물, 푸른 산, 풀, 돌다리, 보리논, 돌탑 ○ 개구리, 애벌레, 무당벌레, 개미, 장미나비		
들은 것	○ 여러가지 꽃이름, 쫄레나무, 오리나무, 대나무, 조상해야 할 것, 지킬 일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현장학습 간다고 일찍 일어났다 엄마께서는 일찍 일어나 잠깐을 싸고 계셨다 학교에 갔다 버스타기 타서 가면서 노래를 불러서 기분이 좋고 신났다. 가다가 보리밭을 보았고 벌도 보았고 내비도 보았다 쉬운 것은 대나무 이름표를 만드는 것이 좋았다 배 만드는 것이 어려운 줄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윤(김민지)

날 짜	2003년 11월 24일	장 소	마산수목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진동면 → 마산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 나무와 새끼 ○ 산림 박물관 견학 ○ 오리나무, 참깨, 참기름, 참깨 ○ 나무 관찰(1)		
들은 것	○ 눈썹나무 가 왜 눈썹나무인가? ○ 갈매나무 ○ 아까 나무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나무관찰(2)을 할 때 관찰하기가 너무 재미있었다. 길로잡이처럼 만들어봐도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나무관찰(2)을 할 때 관찰하기가 너무 재미있었다. 길로잡이처럼 만들어봐도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박주연)

날 짜	2003년 11월 6일 목요일	장 소	반성 수목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간동빌딩 → 반성 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 나무 관찰 (나무의 종류를 알았다) ○ 삼림 박물관 견학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 오리 만들기, 지렁이 만들기 (나무 관찰)		
들은 것	○ 박물관의 경매는 무척 재미있었다 ○ 우리 배는 공식을 정하는 물건이다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느낀 점			

1/3 => 뒤에 보세요

제목: 현장 체험학습
 나는 반성 수목원에서 나무
 의종류도 씨앗과 열매를 배웠다
 또 만들기는 짚으로만은 감자
 리대나무로 만든 오리 등등
 을 만들었다. 느낀 것은
 나무가 많아서 공기가 깨끗
 하고 박물관에는 여러가지
 식물, 동물이 전시 되어있고
 또 곤충이 제일 신기
 했다. 거기 가니까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가족끼리 가면 나무를 관찰
 해야지.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박주연)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마산시 진북면 여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캐비닛 → 진북면 여림사 → 버스 → 학교 도하		
	공부한 내용		
본 것	○ 야생초 예나리, 칼귀, 제비꽃, 질레나무 ○ 시냇물, 풀, 산, 돌, 돌다리 ○ 개구리, 갈매나무, 나비, 해골, 오리, 지렁이		
들은 것	○ 새소리, 잎사귀 소리, 새소리 ○ 조성 한다는 소리		
느낀 점	☆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 반에서 보던 (눈발, 보리, 유채꽃, 쌀 만드는 공장) 관찰 때 어려움을 예(대나무 옆으로 배민들 때) 공부 할 시간의 여유(나무로 내 이름표 만들 때) 야생초 이름을 알 수 있었던 지렁이 (나는 제비꽃이 다 색은 보라색 이었고 풀은 제비꽃 비슷 하게 생겼다.) 숙은 봉에 숙숙 가랑이로 숙 이라는 이름이 지어 졌다		

생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박나희)

안돼라고 버리 라고 했다. 실망이었다.
 보였드린다고 마음속으로 갔다 드린다고
 했는데... 실망이었다. 그리고 할수없이
 버렸습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다. 꽃 이름도 알고 특장
 이유껏인지 알고 참 재미있는 견학이였
 다.

현장 학습소감

2003년 4월 28일 (윤동훈)

뒤
 ○ 예
 ○ 예
 ○ 예
 ○ 예
 ○ 예



내가 오늘 반성 수목원에 가서 수
 목원에서 가르키는 선생님이랑 1째
 시간때 나무를 봤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고 도토리 같은 게
 풀밭에 떨어져 있었다
 우리반에 예전이라는 친구 머리에 도
 떨어졌다

1/3

그래서 예진이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예진이 먼진 몰라서 머리
 에 보니까 도토리 같은 열매가
 머리에 떨어져 있었다.

현장학습 보고서

원형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림(선나희)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마산시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타기 → 진북면 의림사 → 버스타기 → 학교 도착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초 (나비나뭀, 질레나무산딸기) ○ 시냇물, 풀, 산, 들, 다리, 보리는 ○ 개구리, 강아지, 민양어, 애벌레, 나뭇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레나무를 먹을수있는 것을 들었다. ○ 조심해야 하는 것을 들었다.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버스를 타고 가면서 꾸들꾸들 움직였다. 2. 그림은 좋았는데 팔이 아팠다. 3. 나무 이름표를 만들 때 재미있었다. 4. 나는 나비나뭀을 봤다 진짜 나비모양이고 신기했다. 5. 나는 꽃을 봤다 꽃꽃 자란 대로 해서 꽃이다. 6. 김밥 먹을 때 참 맛있었다. 7. 노래 부를 때 띵 띵 띵 띵 재미있었다. 		

현장학습 보고서

원형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림(윤동훈)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마산시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타기 → 의림사 → 버스타기 → 학교 도착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초 들꽃 갈퀴등골재 비꽃 질레나무 ○ 호리나뭀 개미무양벌레 미나리냉이 ○ 시냇물 나비 지네 풀 보리누구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심해야 할 것 멀리까지 양기 ○ 쏠레기 버리지 양기 ○ 무릎 이름이름 기 하라고 하겠다.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오늘가는 날이 두근두근</p> <p>거렸다. 막상 버스를 타보니 좋았다.</p> <p>다, 그리고 버스를 내렸어 무릎 이름만</p> <p>들었다 내 마음속으로 난 힘마도 왔습면</p> <p>좋겠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리고는</p> <p>반짜어는 배만 들기 었습니다. 그리고</p> <p>고운 마음속으로 내가 만든 것을 보였는</p> <p>리고 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 하겠다.</p> <p>하지만 나 중에는 기사아저씨가</p>		


안돼라고 버리 타고 했다. 실망이었다.
 보였드린다고 마음속으로 갔으면 된다고
 했는데... 실망이었다. 그리고 할수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다. 꽃 이름 도 알고 등장
 아무엇인지 알고 참 재미있는 견학이였

현장학습소감

2003년 4월 28일 (윤동훈)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윤(이 수 민)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진동면 →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른콩팥, 증가시나무 ○ 실화백, 이팝나무 ○ 황금편백, 배풍당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른콩팥이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 증가시나무: 도토리같은 열매가 열린다. 		
느낀 점	 <p>자연은 정말 아름답다. 이 나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나!</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윤(이준민)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진동면 →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른콩팥, 증가시 나무, 실화백 ○ 곱팥나무, 한백, 배풍당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서 나무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여러 가지 풀꽃과 나무를 보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과 꽃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짙은 잠자리를 만들고 이쑤시개와 대나무로 오리도 만들었다. 만드니까 기분이 좋았다. 또,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윤(이준화)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마산시 진북면 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 타기 → 진북면 의림사 → 버스 타기 → 학교 도차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비꽃 ○ 갈퀴덩굴 ○ 연꽃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한 것 ○ 조심해야 할 것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나는 현장 학습을 갈려고 일찍 일어났다. 엄마도 김밥을 싸느라 일찍 일어나셨다. 학교에 갈 적 가 선생님께서 주워정을 들고 갔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흥겹게 부르니 기분이 좋았다. 또 도착할 때 브리발도 보았다. 그리고 나무도 만들어 주었다. 내 아재는 꽃은 제비꽃을 하였습니다. 또 대나무 껍질로 배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오리나무로 오리도 만들었는데 재미있었다. 갈퀴덩굴은 낚시할 때에 낚시바늘처럼 생겼었다. 또 김밥과 간식을 먹으며 개구리까지도 보았다. 음료수도 마셨다. 푸른 산도 보았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일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윤(이현민)

날 짜	2003년 11월 6일	장 소	반성수목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진동면 → 반성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관찰<2> (4) 나무관찰<1> ○ 산림 박물관 견학 ○ 오리잠자리 만들기 		
들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궁화> ○ 나무<증가시나무>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주세요.</p> <p>나는 학교에서 출발해 진동면을 지나 반성수목원에 도착했다. 첫째 시간에는 나무관찰<2>를 하고 둘째 시간에는 산림 박물관 견학을 했다.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잠자리 만들기 교과서 넷째 시간에는 대나무와 이쑤시개로 오리 만들기 교과서 마지막 다섯째 시간에는 나무관찰<1>를 하였다. 나는 7월에 한번씩 현장 학습을 갔으면 좋겠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정하린)

날 짜	11월 6일	장 소	반방수목원
이동한 순 서	학교 → 운동장 → 반방수목원		
공부한 내용			
본 것	① 나무 관찰 ② 짙은 잎, 얇은 잎 만들기 ③ 잎의 만들기 ④ 산림 박물관 견학		
들은 것	○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잎을 차를 생개화 삼내리고 한다. 잎초에 쓰이기도 한다) ○ 이기동물 (술을 먹으면 아담처럼 노란 물이 나오)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느낀 점	 <p>어떤 물이든 라블은 식물 아담처럼 산림 박물관 나중에 놀러 올래다 나는 참이였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정하린)

날 짜	4월 24일	장 소	마한서린보면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타기 → 진북면의림사 → 버스타기 → 학교 도착		
공부한 내용			
본 것	① 야생초 (제비꽃, 미나리냉이, 죽참나무, 갈퀴덩굴) ② 시냇물, 푸른산, 풀, 돌다리 ③ 개구리, 개미, 애벌레, 무당벌레, 벌, 지네		
들은 것	○ 시냇물소리, 새소리, 나무소리, 꽃잎소리 ○ 조심히하느소리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느낀 점	<p>나는 학교에 배려가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소동을 의림사에 갔다. 다들 바위에 쳐다보이 꽃이 많이 있어 서이 봤다 나는 소풍이 가서 김밥을 먹고 너무 이쁘고 따듯하고 배드 풀로 만든 것이다 야생초도 소리를 듣고 시냇물소리가 낫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였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정하린)

날 짜	2003년 4월 4일	장 소	맛선시진북면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타기 → 진북면의림사 → 버스타기 → 학교도착		
공부한 내용			
본 것	○ 야생초 (미나리냉이, 쫄레나무, 제비꽃, 갈퀴덩굴) ○ 시냇물, 푸른산, 돌다리 ○ 개구리, 강아지, 고양이, 애벌레, 지렁이, 지네, 나비		
들은 것	○ 여러가지 꽃이름 ○ 대나무로이름표 만들기		
느낀 점	<p>☆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p> <p>버스를 타며 재미있을 것 같고 생각했다. 버스를 타다. 잠도 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을 가다. 거기에서 전도파리 빵과 점심을 먹었다. 대나무잎으로 배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간식을 먹었다. 참맛있었다. 가족이랑 나랑 같이 가고 싶다.</p>		

현장학습 보고서

원영초등학교 제 2학년 5반 이름(정하린)

날 짜	2003년 4월 24일	장 소	마한서린보면의림사
이동한 순 서	학교 → 버스타기 → 진북면의림사 → 버스타기 → 학교도착		
공부한 내용			
본 것	○ 야생초 (들꽃, 미나리냉이, 죽참나무, 갈퀴덩굴) ○ 시냇물, 푸른산, 풀, 돌다리, 보리밭 ○ 개구리, 강아지, 고양이, 애벌레, 개미, 나비		
들은 것	○ 울리사나무로 이름표 만들기 를 합니다. ○ 나무이름표야 생초 ☆ 그림이나 글로 써보세요.		
느낀 점	<p>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진북면 의림사로 갔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진북면에 갔다. 어려운 것은 대나무 잎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 또 점심을 맛있었다. 그리고 대나무로 나무이름표 만들게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야생초도 관찰을 해보았다. 근데 야생초를 너무 많이 관찰을 하니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진북면에 자주 갔으면 좋겠다. 거기있으니까 너무 신</p>		

나무로 만들기 체험환경교육

작성자 : 김대현



나무 목걸이 만들기

◎ 준비물 : 나무 조각, 싸인펜, 가죽끈, 사포

◎ 나무 목걸이 만드는 순서

① 둥근 나무 조각의 거친 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 매끈하게 만든다.



② 싸인펜을 이용하여 ①의 나무 조각에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



③ 그림을 그려진 나무 조각의 구멍에 가죽끈을 묶는다.

④ 가죽끈의 양끝을 모아 매듭지은 후 완성한다.





장승과 솟대 이야기

1. 장승은 왜 만드는가?

장승은 말은바 임무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생김새나 서있는 위치도 달라진다.

예로부터 장승은 마을로 들어오는 재앙과 액을 막아주고 풍년을 빌어주며 마을간의 거리표시나 이정표의 역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이 양반이나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표현을 장승의 얼굴로 나타내어 울분과 서러움을 삭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장승은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현 그리고 전승하는데 중요한 뜻이 있음은 물론 전통적인 한국의 대표얼굴이라는 예술적 가치를 높여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 우리고유의 장승문화를 알려 살아있는 한국인의 뚜렷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2. 장승은 어디에 쓰이는가?



전통적 차원에서의 장승의 쓰임, 즉 기능을 간단히 표현하면,

- ⇒흉년,재앙,역병등으로 부터 예방차원에 세운 부락수호의 기능
- ⇒방위가 허한곳에 오방신장을 세운 방위수호의 기능
- ⇒국가의 안녕과 군왕의 장생을 기원한 산천비보의 기능
- ⇒농경,수렵의 땅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경계표의 기능
- ⇒이정표를 위한 노표의 기능
- ⇒외지의 역병이나 재앙의 침입을 문밖에서 제지한 성문수호의기능
- ⇒득남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기자의 기능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 차원의 쓰임새는 사라지고 그 의미를 이어받아 각종 축제행사에 등장하는가 하면 민속공원의 조성, 민속축제 행사시의 장승보급

차원의 시연이나 체험학습장으로 열리기도 하며, 장승이 소품화 되어 실내 소장품으로도 이용되는 등 장승의 잠재적 가치는 무한하다.

3. 장승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장승을 만드는 소재에 따라 나무로 만든 목장승, 돌로 만든 석장승, 쇠로 만든 철기장승, 단지로 만든 옹기장승, 흙으로 만든 토기장승, 모래장승, 기와장승, 짚풀장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크게 전통장승과 현대장승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장승은 위의 쓰임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이 기괴하고 험상한 얼굴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으로 오방신장의 모습에서 천하대장군으로 모두가 수호신의 역할장승을 말하는데 반해, 현대장승은 역사와 시대의 변천을 거쳐 기능과 쓰임의 목적이 전통장승의 기능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갖가지 형태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산발머리장승, 복두칠성장승, 하트장승, 스마일장승, 남북통일장승, 월드컵기원장승, 노사 화합장승, 캐릭터장승 등 각종 행사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명

문을 새긴 장승 등이 요즘 시대에 나타난 장승들이다.

4. 장승과 함께한 솟대 이야기

장승이 서 있는 곳에서 솟대를 함께 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솟대란 새를 조각하여 긴 나무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솟대는 장승과 함께 주술적인 의미도 가진다. 옛날 농가에서는 선달 무렵에 새해의 풍년을 바라는 뜻에서 범씨를 주머니에 넣어 장대에 달아맨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장대를 넓은 마당에 세워놓은 후,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농악을 벌이고 잔치를 한다.

또, 과거급제한 사람을 위하여 마을 입구에 푸른칠을 한 나무로 만든 용을 달기도 하였는데 이를 솟대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 솟대는 주술적인 요소보다는 길의 방위를 표시하는 하나의 조경구조물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숫대 만들기

◎ 준비물- 나무가지(2개), 나무 조각(받침용) , 대나무 가지, 사포



◎ 숫대 만드는 순서

- ① 굵은 나뭇 가지를 사포로 다듬는다.
- ② 가는 나뭇 가지를 사포로 다듬는다.



③ 완성된 ②의 나무 가지를 ①의 구멍에 끼운다.



- ④ 대나무 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둥근 나무 조각의 구멍에 꽂아 받침대를 완성한다.
- ⑤ ③에서 만든 숫대를 받침대에 꽂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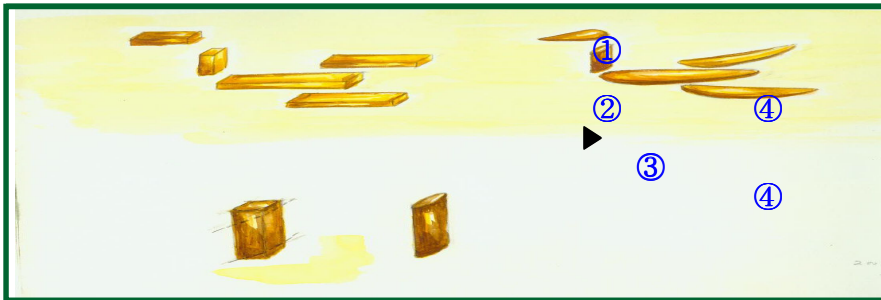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여 솟대 만들기

- ◎ 준비물- 나무젓가락, 사포(30번, 220번), 목공용 딱풀, 신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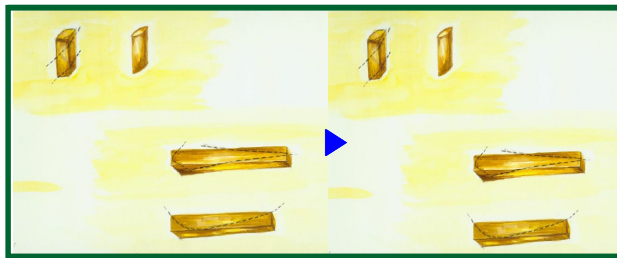


◎ 나무젓가락으로 솟대 만드는 순서

- ① 머리 부분은 부리 모양으로 다듬는다



- ② 목 부분을 세워 아래 그림과 같이 사포로 둥글게 다듬는다.



- ③ 몸통 부분은 앞은 둥글게 꼬리 부분은 뾰족하게 다듬는다.



- ④ 날개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끝이 위로 향하게끔 만든다.



⑤ ①,②,③,④을 목공용 딱풀로 붙여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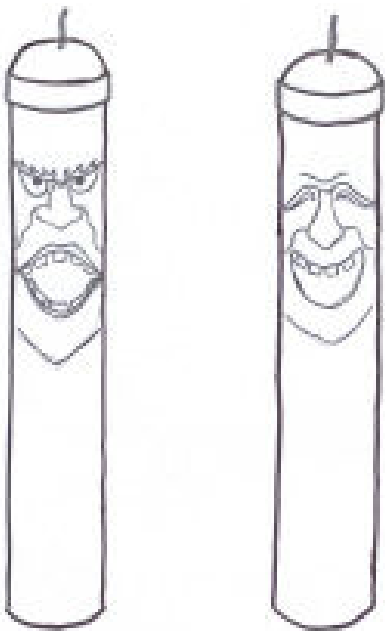
촛대로 장승 만들기

◎ 준비물- 흰색 혹은 색깔 있는 굵은 양초, 조각도 또는 못

◎ 양초로 장승 만드는 순서

- ① 못 또는 샤프와 같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양초에 그림과 같은 밑그림을 그린다.
- ② 밑그림을 따라 조각도나 못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파낸다.
- ③ 거칠한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 매끄럽게 만들어 완성한다.

<장승 밑그림>



<초로 만든 장승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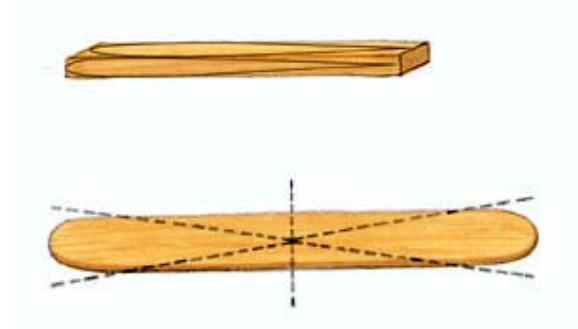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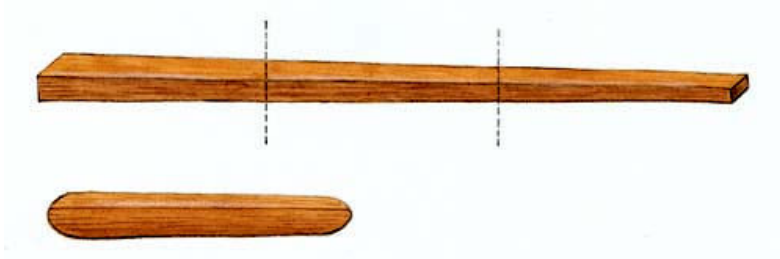


잠자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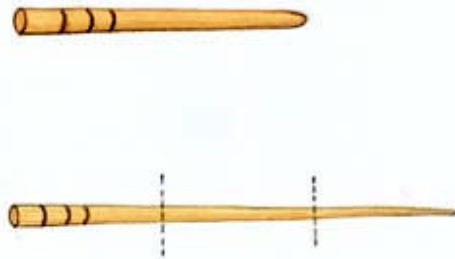
◎ 준비물-나무젓가락, 하드바, 메주콩, 이쭉시개, 목공용 딱풀, 사포

◎ 여러가지 나무를 이용하여 잠자리 만들기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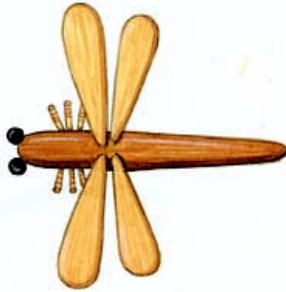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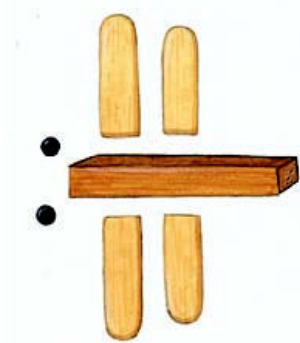
- ① 나무 젓가락을 3등분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몸통을 다듬는다.
- ② 하드바를 2등분 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날개 모양으로 다듬는다.



③ 이쭉시개 6개를 2등분하여 다리 6개를 다듬는다.



④ ①에 ②와③을 붙이고 콩으로 눈을 만든 후 완성한다.



■ 참고 자료

○ 사포의 종류

- 사포는 녹이나 곰팡이, 목재의 거친 표면이나 고르지 못한 면을 매끈하게 다듬는데 사용한다.
- 거칠기가 다양하여 거칠고 단단한 면을 다듬을 때는 거친 사포를 ,부드럽고 고운 면을 다듬을 때는 고운 사포를 사용한다.
- 사포를 준비할 때는 '방수'를 알아야 하는데 방수는 사포의 1cm X 1cm안에 있는 입자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220방이라는 것은 1cm' 안에 입자수가 220개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방수는 사포의 뒷면에 쓰여 있고 30방에서 2000방까지 있으며 방수가 높을수록 고운 사포이다.

■ 참고 사이트

[Http://hohonamu.com](http://hohonamu.com) -호호나무

■ 참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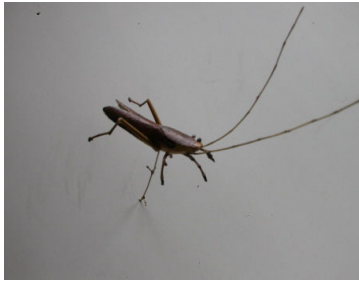
<게아재비>



<게>



<잠자리>



<메뚜기>



<매미>



< 나비(대나무) >



< 꽃 >



<나비>



<나비>



<나비>



<달팽이>



<달팽이(대나무)>



<동자개>



<미꾸라지>



<버들치>



<복 어>



<붕 어>



<참붕어>



<여러 가지 새와 동물>

짚풀로 만들기 체험환경교육

강사 : 서정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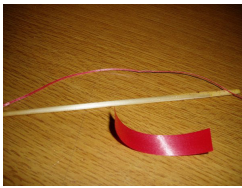
- 참고 홈페이지 www.jippul.com
- 전화번호 011-9537-7852
- 이메일 pul@jippul.com

짚풀로 만들기

잠자리 만들기



잠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①보릿대나 밀대, 붉은 노끈 조각, 끈을 준비한다.



②노끈을 반으로 접고 접힌 쪽으로 양쪽 모서리를 둥글게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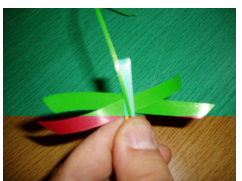
③반으로 자른다.



④보릿대를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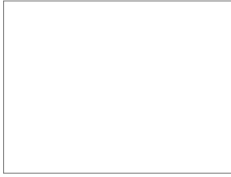


⑤접힌 보릿대에 노끈 조각을 x자로 겹쳐 끼운다.



⑥보릿대에 대각선으로 끈을 대고 위아래 두바퀴

정도씩 감아 묶어 고정한다.



⑦ 눈으로 만들 보릿대 조각을 잘라 겹친 보릿대 사이에 끼운다.



⑧ 아래 보릿대를 잡고 살짝 당겨 고정시킨다..



⑨ 날개를 펴서 완성한다.

벌레집 만들기



벌레집을 만들어 봅시다.



① 넓은 잎2장, 솔잎을 준비한다.



② 잎 2장을 겹쳐 잎 가장자리를 빙 둘러 편으로 촘촘히 구멍을 낸다.



->



③ 솔잎을 한번은 위에서 아래로, 다음은 아래에서 위로 번갈아 구멍에 따라 끼운다..



④ 모두 끼운 상태



⑤ 두 잎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벌려 완성한다.



⑥ 솔잎 하나를 빼서 벌레를 넣어 다시 끼운다.

뱀 만들기



뱀을 만들어 봅시다.



① 풀을 가지런히 모은다.



② 끝에서 2cm정도 칭칭 감아 묶는다.



③ 묶은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게 잡고 풀잎을 하나씩 내려준다.



④ 가운데 혀2개를 남겨두고 돌려가며 하나씩 내려준다.



⑤ 머리 부분을 묶어 머리와 몸통 부분을 분리한다.



->



⑥ 몸통을 머리땅기로 땅고 끝은 묶어준다.



⑦ 열매나 풀을 끼워 눈을 만든다.



⑧ 또아리를 틀어 완성한다.

여치집 만들기



여치집을 만들어 봅시다.



① 보릿대를 2개를 준비한다.



② 그 중 한개를 반으로 접어 접힌 부분 양쪽 모서리를 비스듬히 잘라 펴준다.



③ 다른 한개를 생긴 구멍에 끼워 +를 만든다.



④ 보릿대를 세 구멍에는 한 개씩, 한 쪽에는 두개를 끼운다.



⑤ 두 개 끼운 쪽 한 개부터 모서리에 맞춰 밀면 모양에 따라 접어간다.



⑥ 한번씩 접혀지는 모습



⑦ 보릿대 길이가 짧아지면 끝을 각에 맞게 자르고 새로운 보릿대를 구멍에 끼운다.



⑧ 폭을 좁히면서 계속 접어 올린다.



⑨ 끝을 빠지지 않게 끼워 당겨서 고정시킨다.



⑩ 길게 남은 두 끝을 끼워 고리를 만든다



⑪ 다듬어서 여치집을 완성한다.

천연 염색 체험환경교육

작성자 : 전명순

1. 치자 물들이기

치자나무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 흔히 심는 나무이다. 꽃은 강한 향기가 나며 6~7월에 흰꽃이 핀다. 염료를 쓰는 열매는 타원형으로 양 끝이 뾰족하고 6모가 졌으며 홍황색으로 익은 열매는 가을에 따서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한다. 옛날부터 치자로 음식을 노랗게 물들이거나 장판지를 염색할 때 사용되었으며 방충성이 있어 어린이 속옷을 염색할 때 사용되었다.

<염색> -손수건 염색하기-

① 치자를 잘게 부수어 물을 넣고 15분~20분간 끓인다.





② 손수건을 고무줄로 묶어 무늬를 만든다.



③ 색소가 우려나온 치자를 채에 받쳐 걸러낸다.



④ 치자물의 온도는 60℃~70℃에 손수건을 넣고 주무른다. (20분정도)



⑤ 맑은 물에 씻는다.



⑥ 고무줄을 끈다.



⑦ 그늘에서 말린다.



⑧ 손수건 완성



※ 진한 색으로 물들이고 싶을 경우에는 반복한다.

2. 황토 물들이기

황토는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제거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며 노화현상을 더디게 한다. 황토염색을 한 천은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염색> -면 목도리 염색하기-

① 황토를 채에 받쳐 물을 넣고 황토물을 만든다.



② 천을 깨끗이 씻는다.



③ 황토물에 굵은 소금을 넣는다.



④ 황토물에 천을 넣는다.



⑤ 천에 황토물이 골고루 묻도록 주무른다.



⑥ 맑은 물에 씻는다.



⑦ 천을 펴서 말린다.



⑧ 완성된 목도리



※ 진한 색을 원할 때에는 반복한다.